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5년도 제6호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자율성 93점·조직운영 87.17점·비전전략 86.67점 등 최상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체육단체 혁신 평가서 '2년 연속' 최고 등급

이의석 STN 기자

회장 직속 마케팅실 신설

"돈 버는 체육회 내가 직접 챙길 것"

김지한 매일경제 기자

지방중앙노동위 모두 "부당한 징계" 판정

폭언·갑질반복 전북체육회 간부 '강등'...법원 "징계 정당"

강경호 뉴시스 기자

제주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이병철 전 제주시체육회장 재심 자격정지 1년

박주연 제주MBC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헬스장 10%는 가격 표시 안 해...체육교습업도 가격 표시

송병철 TV조선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체육시민연대 2025년 정기총회 안내

안녕하세요, 체육시민연대 회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체육시민연대는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일시: 2025년 2월 25일(화) 오후 4시
2. 장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3. 참가대상: 체육시민연대 회원, 체육 활동 및 사회 참여에 관심 있는 시민
4. 주요 안건
 - 개회 및 인사말
 - 2024년도 활동 및 재정 결산 보고
 - 2025년도 사업 계획 및 추진 전략 발표
 - 기타 안건(회원 제안 안건 및 자유 토론)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총회 개최 7일 전(2월 18일)까지
sports-cm@hanmail.net으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우리 조직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모든 회원이 함께 소통하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중한 의견이

체육시민연대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회에서 뵈기를 기대합니다.

체육시민연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체육단체 혁신 평가서 '2년 연속' 최고 등급

대한아이스하키협회(회장 이호진·이하 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이하 문체부)가 시행한 체육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최우수)을 획득했다. 협회의 최고 등급 선정은 지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이다.

협회 사무처 측은 "협회가 대한체육회 소속 가맹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당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며 "체계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의 노력 등이 한국 아이스하키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입증한 결과다"고 24일 밝혔다.

체육단체 혁신평가는 시대변화에 맞는 체육 종목 단체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책 기반 구축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시행된다. 글로벌 스포츠 강국으로의 위상에 걸맞는 체육 단체의 운영 전반과 스포츠인권, 윤리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 조성 활동 등을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총 72개 대한체육회 종목 단체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하계와 동계, 전문(엘리트)과 생활스포츠 등 종목 특성에 따라 가군 18개와 나군 22개, 다군 11개, 라군 11개, 마군 10개 등이다. 평가위원장과 평가위원, 당연직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혁신평가위원회가 심사를 맡았다.

협회는 2년 연속(2022-2023년) 높은 점수를 받아 온 비전전략(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계획 및 활동) 부문에서 86.67점을 획득하면서 전체 평가 대상중 최상위 성적을 받았다. 또 조직운영과 단체자율성 등에서도 각각 87.17과 93점을 받아 평가 대상중 군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협회 측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비전 및 전략 수립, 재정 건전성 확보, 학교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둔 결과"라며 "특히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유소년 및 엘리트 선수 육성과 저변 확대,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게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호진 회장은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게된 건 모두 사무처를 비롯한 선수와 지도자,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며 한국 아이스하키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혁신과 체계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문체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유·청소년 대상 아이리그(i-league)에 대한 성원도 당부했다. 이 회장은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29개 시군에서 41개 리그 162개 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청소년 전문 리그가 첫 발을 내딛는 만큼 전국적인 아이스하키 대중화에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돈 버는 체육회 내가 직접 챙길 것"

오는 28일 취임하는 유승민 42대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의 7대 핵심 공약 중 하나는 '자생력 향상'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체육회'를 비전 중 하나로 제시하며 "예산 외에 다양한 수익 구조를 통해 자생할 수 있는 체육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당선인은 회장 취임을 앞두고 진행한 이번 인터뷰에서도 이 같은 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 17일 체육회 이사회를 통과한 직제 개편안에서 마케팅실이 신설됐다. 돈을 버는 체육회를 만들겠다는 유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신설 조직이다.

마케팅실에 대해 유 당선인은 "회장 직속으로 편성했다. 그만큼 내가 마케팅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9년부터 5년간 대한탁구협회장으로 재임하면서 100억원 넘게 후원금을 유치했다. "그동안 체육회는 국가 보조금에만 기대어 왔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고 말한 유 당선인은 "국가대표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등 체육회가 변화하고 발전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체육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과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시절 올림픽연대기금 모델 디자인에 참여한 경험을 살려 체육회에서 번 수익을 여러 체육 관계 단체에 분배할 뜻을 밝혔다. 유 당선인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건 체육회만 배부르게 있겠다는 게 결코 아니다. 우리를 보고 있는 선수와 지도자, 각 지방 체육회와 경기 단체에 수익을 재분배할 생각"이라면서 "건강한 체육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유 당선인은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관심도 당부했다. 그는 "기업들이 대한민국 스포츠를 대표하는 체육회와 함께 큰 그림을 그려 갔으면 좋겠다. 체육회는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힘줘 말했다.

폭언·갑질반복 전북체육회 간부 '강등'...법원 "징계 정당"

폭언과 갑질 등을 저지른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간부에 대한 도 체육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전북체육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강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전북체육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2년 3월 전북체육회는 당시 기획조정본부장이었던 A씨에 대해 폭행·폭언 등의 직장 내 갑질, 회계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징계절차를 개시한 뒤 그를 해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북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전북노동위는 같은 해 8월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가 되지 않았기에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으며 전북체육회는 이를 이행해 A씨를 복직시켰다.

A씨의 복직 이후 전북체육회는 재차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등을 통해 두차례 징계 절차를 열고 해임 대신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강등 처분 역시 부당강등이라고 주장하며 전북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전북노동위는 강등 처분도 부당강등이라고 판단, 전북체육회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전북체육회는 중앙노동위의 기각 판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이며 이는 체육회의 징계 양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내용이나 도 체육회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와 탄원서에 비춰보면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또 A씨의 직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더해볼 때 A씨의 행위로 직원들이 겪은 업무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 등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중앙노동위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비위의 도가 가볍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A씨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징계를 통해 달성되는 체육회의 화합과 기강 확립 등의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병철 전 제주시체육회장 재심 자격정지 1년

직장내 괴롭힘 판정으로 물러난

이병철 전 제주시체육회장이

재심에서 징계가 늘었습니다.

제주도체육회는

어제(17일) 오후

이 전 회장의 징계 결정을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1차에서 빠졌던 언어폭력과 인권침해를 추가해

자격정지 8개월에서 4개월 늘어난

자격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징계로 이 전 회장은

오는 12월 22일까지

체육회 회장직과 임원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데,

제주도체육회는 이달말까지

대한체육회에 결과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헬스장 10%는 가격 표시 안 해… 체육교습업도 가격 표시

시중 헬스장 중 10% 이상이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수도권과 주요 시·도에 위치한 2,001개의 헬스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48개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는 2022년부터 시작된 가격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헬스장 사업자들이 서비스 내용, 요금체계, 환불 기준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과거 준수 비율이 낮았던 헬스장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을 확대하여 실시됐으며, 가격표시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됐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헬스장은 가격표시제를 준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248개 업체는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들 사업자들이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미이행 업체에 대해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는 체육교습업도 가격표시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최근 중도계약 해지 및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체육교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가격표시제의 내용을 직접 교육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간 스포츠 소식

체육공단, 2025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 대상 모집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4062800007?input=1195m>

5년 만에 돌아온 광명건강체육센터 수영장, 28일 재개장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1298886642073472>

부산시,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역대 최다 메달 획득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2824>

퇴직자는 할인? 부산 공공체육시설 돈 줄줄 썼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50224.22010006570>

"헤어지자 해서"...전 여친 폭행한 30대 체육교사 체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20_0003071958

경기도체육회, 제11차 이사회 개최...도족구협회, 관리단체 해제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32142>

인천시체육회, 인천 선수단 동계체전 역대 최고점수 달성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3146>

흥국생명 김연경·KB손보 비예나, 프로배구 5라운드 MVP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96390&plink=ORI&cooper=NAVER

김제시, 체육진흥시설 공모 선정...50억 투입 '전지훈련센터' 건립

<https://www.smartf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512>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